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 첨단기술·새싹기업 미래 그린다

오는 6일~8일, 유에코서 열려
국내외 460개 기관·기업 참가
배터리·AI 등 5개 주제관 구성

울산시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유에코(UECO)에서 울산의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첨단 기술을 대대적으로 선보일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WAVE)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WAVE, World Advanced Vision Expo)는 울산에서 시작된 혁신의 파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460개 기관·기업이 참가하며 주요 참여 기업으로는 삼성SDI, 현대자동차, SK에너지, 에스오일, 고려아연, LS MnM 등이 있다.

박람회는 ▲울산배터리테크플러스(U-BATTERY TECH+) ▲뉴런



울산시청.

/울산시

에이아이플러스(Neuron AI+) ▲지능형 이동수단 ▲미래 에너지 ▲새싹기업 등 총 5개 주제관으로 구성되며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산업, 자율주행 차량, 수소 에너지, 신생 스타트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소개한다.

울산배터리테크플러스관은 이차전지 전주기 실험 및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며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기업인 삼성에스디아이를 비롯한 이차전지 소재 제련 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 LS MnM 등이 전시에 참가한다.

뉴런 에이아이플러스관은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확장 가상 세계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AI를 활용한 지능형 공장 해법을 개발한 아임토리, 노바테크 등이 전시에 참여한다.

지능형 이동수단은 수소차, 전기차, 전기비행기, 지능형 선박 등을 전시한다. 특히 울산에 생산 공장을 둔 현대자동차는 수소차와 수소저장 이

차 최초로 전기 비행기 인증을 앞둔 토프 모빌리티에서는 전기비행기 실물을 전시할 예정이다.

미래 에너지관은 수소, 분산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와 석유화학 관련 전시품을 선보인다. 울산의 주요 대기업인 SK에너지와 에스오일뿐만 아니라,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을 통해 네덜란드 에너지 기업들의 수소 및 배터리 연구 성과 등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새싹 기업관에서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및 근로복지공단 등의 새싹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기업을 홍보한다.

이와 함께 박람회 기간 국제 토론회, 수출 상담회, 투자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세계적 사업과 산업 기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순창군

‘군민행복 통일열차’ 운행

순창군은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운행하는 '2024년 군민행복 통일열차'가 순창군민 369명을 태우고 임진강역으로 향했다.

이번 행사는 통일 염원을 담아 광주역을 출발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를 오가는 여정으로, DMZ 일원을 둘러보며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른 새벽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열차에 올라 통일 관련 강연을 듣고, 최영일 군수는 열차 내 각 객차를 순회하며 군민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전북)=양수영 기자

울진군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울진군은 생물테러 발생을 대비한 초동대응요원의 현장 대응 능력 함양 및 유관 기관과 긴밀한 공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2024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을 오는 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진군보건소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에는 울진보건소, 울진경찰서, 울진소방서, 제5312부대, 울진군의료원, 울진군 안전재단과 총 6개 유관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다.

오는 6일에 진행될 훈련에는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체계 교육 ▲생물테러 발생 시 초동 조치 대응 영상 ▲다중 탐지 키트 사용법 시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포항시,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 지정

산업부, 수소연료전지산업 육성
블루밸리 산단 내 28만㎡ 규모 조성
2035년까지 수소기업 70개사 유치

포항시가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수소연료전지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북 포항을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소특화단지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28만 240㎡ 규모로 조성, 수소연료전지 생산·수출 거점으로서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특화단지에 지정된 포항시는 단기적으로 2028년까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으로 기업 지원

핵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후 203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부품·소재 기업 육성과 전·후방 산업 밸류체인망 구축, 대·중·소 기술협력 지원으로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앵커기업을 비롯한 수소 기업 70개사를 유치해 소부장 연계 강소기업 20개사를 집중 육성하고, 연료전지 부품·소재 국산화율 100%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번 지정으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예산과 규제개선 및 각종 인허가를 신속 지원받는 한편 수도권 기업의 이전 지원보조금 2% 가산, 산업 용지의 수의계약 등을 지원받으며, 수소 기업 유치 활동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완도군은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가해 이탈리아 수산물 업체와 수출 협약을 맺었다.

/완도군

완도군, 비엔나서 해양치유 우수성 알려

(오스트리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가

전남 완도군이 지난 27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해 해양치유산업과 수산물 우수성을 알렸다.

신우철 완도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수출박람회와 전남·경북 공동관 개관식 등에 참가했으며, 특히 신 군수는 광역·기초 지자체장으로써 유일하게 세계 한상, 현지 바이어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치유의 섬, 완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치유가 세계적인 웰니스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완도만의 치유 자원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

었다.

완도군의 수산물 수출 업체인 ㈜해청정, (유)하나물산, 완도마명어조합법인, 완도다 어업회사법인(주) 등은 수출박람회에서 완도군 홍보관을 운영, 밥에 넣는 톳과 전복 차우더, 전복 꼬치 등을 선보였다.

아울러 66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해 미국,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중국, 대만 등 바이어와 14건, 1080만 불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라남도 홍보관에 참가한 업체를 포함하여 완도군의 총 6개 업체는 미국 라티노&한인협회 이사이자 kylobal Inc. 공보미 대표와 350만 불 상당의 3자 수출 협약을 체결하며, 완도군 수산물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입지를 다졌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전북도-한전, 국가 기간전력망 건설 협력

재생에너지 발전 접속제한 우려 해소

한국전력과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기간전력망 적기 건설에 협력,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접속제한 우려 해소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와 전력망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호남지역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 기간전력망 적기 건설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기 회의를 통해 협력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31년 말까지 약 42GW(기가와트) 규모로 확대될 전망인데, 이외에 추가로



한전 김동철 사장(왼쪽)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일 여의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와 전력망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한에 의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계통포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간전력망의 적기 건설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으로, 현재 발의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부산시, '물류대상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

물류산업 고도화·산업 경쟁력 기여

부산시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2024년 제32회 한국물류대상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물류의 날(11월1일)을 기념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발굴, 포상하고 있다.

시는 물류산업 고도화와 세계적 위상 제고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상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한 시의 주요 활동 사항은 ▲국토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2년 연속 선정 추진 ▲지능형 무인자동차 스마트물류 시스템 구축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 및 국제철도기술산업전 동시 개최 등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산청군

도로정비 종합평가 '최우수'

산청군은 경남도가 진행한 2024년 도로정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춘·추계 도로정비 결과를 합산해 이뤄졌다.

2021년 우수기관 선정 이후 3년 만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산청군은 자체 계획 수립 등 평소 철저한 준비로 평가를 대비했다. 특히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국도3호선 산청읍 구간 방음벽을 투명방음벽으로 교체해 교통환경을 개선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